

브리지스톤, 신형 아우디 e-트론 GT 맞춤형 초고성능 포텐자 스포츠 A 타이어 개발

- 브리지스톤 포텐자 스포츠 A 타이어, 신형 아우디 e-트론 GT 시리즈의 신차용 타이어로 선정, 배터리의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 EU 라벨 A 등급의 회전저항을 포함해 새로운 성능 기준 적용
- 브리지스톤의 맞춤형 타이어에 엔라이트(ENLITEN) 기술을 적용해 아우디 e-트론 GT의 최고 성능을 만족시키면서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 구현
- 포텐자 스포츠 A는 지속가능성 및 탄소 관련 국제적인 인증 ISCC PLUS를 획득하고 브리지스톤이 대량 생산하는 첫 번째 타이어 모델 - 재활용 및 재생 가능한 원료를 55% 사용해 제조생산한 타이어

서울 (2024년 9월 24일) — 전세계 타이어 및 고무 산업을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를 위한 제품 및 솔루션을 공급하는 브리지스톤이 신형 아우디 e-트론 GT 시리즈 차량에 장착될 맞춤형 초고성능 타이어 개발 파트너로 선정됐다.

브리지스톤과 아우디는 오랜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아우디 차량 다섯 대 중 한 대 꼴로 브리지스톤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다. 아우디가 신뢰하는 파트너인 브리지스톤이 “타협 없는 순수한 성능”이라는 아우디 e-트론 GT의 철학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타이어를 개발했다.

새로 탄생한 브리지스톤 포텐자 스포츠A 프리미엄 타이어는 신형 아우디 e-트론 GT의 고성능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개발됐다. 전세계 시장에서 신차용 타이어로

인증받은 브리지스톤의 프리미엄 타이어 포텐자 스포츠A는 아우디의 엄격한 테스트를 거쳤다. 아우디의 최신 전기자동차 모델인 S와 RS가 지닌 성능이 요구하는 최상의 타이어 성능을 발휘함과 동시에 뛰어난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브리지스톤 포텐자 스포츠A 프리미엄 타이어가 제공함을 인정받았다.

포텐자 스포츠A는 브리지스톤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국제적인 인증인 ISCC PLUS 인증을 획득하고 첫 번째로 대량 생산하는 타이어로, 타이어 제작에 재활용 및 재생 가능한 원료가 55% 사용됐다.

브리지스톤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법인의 신차용 타이어 부문 스티븐 드 보크(Steven De Bock) 부사장은 “브리지스톤 포텐자 스포츠A와 같은 타이어를 통해 브리지스톤이 신형 아우디 e-트론 GT와 같이 초고성과 강력한 동력을 가진 차량을 포함해 모빌리티를 더욱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자랑스럽습니다.”라며 “브리지스톤의 혁신적인 타이어가 차세대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기여합니다. 브리지스톤 포텐자 스포츠A는 아우디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에서 가장 최신의 협력 사례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브리지스톤 포텐자 스포츠A 타이어는 동급 최고의 에너지 효율성과 더욱 길어진 배터리 주행 거리를 구현한다. 포텐자 스포츠A 타이어는 EU라벨 A등급의 회전저항을 자랑하며, 아우디 e-트론 GT가 경이로운 500km 주행거리를 기록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젖은 노면에서 동급 최고의 EU라벨 A등급을 획득하며 뛰어난 안전성과 컨트롤을 운전자에게 제공한다. 덕분에 아우디 e-트론 GT는 역동적인 주행 중에도 높은 정확도의 조향 응답성을 발휘한다.

포텐자 스포츠A 타이어 개발에는 e-트론 GT에 특별히 맞춤형으로 설계한 고유의 트레드 디자인, 카커스 강화 기술 및 디자인이 적용됐다. 여기에 더해 핸들링, 성능, 승차감을 극대화하는 맞춤형 설계가 브리지스톤의 프리미엄 타이어에 사용됐다.

아우디의 타이어 개발 엔지니어인 로빈 스테트너(Robin Stettner)는 “최대 925마력(PS)을 자랑하는 아우디 RS e-트론 GT 성능은 역동적인 주행을 위해 모든 부분을 완벽히 조율한 초고속 차량입니다”라며 “브리지스톤 포텐자 스포츠A 타이어는 이러한 성능을

구현하고 아우디가 요구하는 높은 기준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충족시켰습니다. 이로써 브리지스톤 포텐자 스포츠A는 완벽한 선택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개발

브리지스톤의 프리미엄 타이어 포텐자 스포츠A를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안전과 성능에 대한 타협 없이 전기자동차의 특성을 모두 고려한 전기자동차 전용 타이어로 개발하기 위해 브리지스톤은 엔라이트(ENLITEN) 기술을 사용했다. 재활용 및 재생 가능한 원료의 사용과 함께 엔라이트 기술은 타이어의 안전성과 성능을 보장하면서도 탄소 배출 감소, 자원 효율성, 원료 순환성을 높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준다. 엔라이트(ENLITEN) 기술 플랫폼은 아우디 e-트론 GT를 포함해 전기자동차가 요구하는 에너지 효율성 향상, 뛰어난 컨트롤, 소음 감소와 같은 타이어의 중요한 성능 및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게 해준다.

새로운 포텐자 스포츠A 타이어가 지속 가능성과 성능을 동시에 구현하는 브리지스톤의 혁신적인 역량을 입증함에 따라 2050년까지 100% 지속 가능한 원료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 브리지스톤의 여정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유럽에서 개발된 브리지스톤 포텐자 스포츠A 타이어는 전륜 265/35 R21 101XL Y, 후륜 305/30 R21 104XL Y 사이즈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 프리미엄 타이어는 2022년 ISCC PLUS 인증을 받은 브리지스톤의 이탈리아 로마 근교에 위치한 최첨단 생산시설에서 제조 생산된다. 브리지스톤 로마 공장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로 ISO 50001 인증을 받았다. 로마 공장은 타이어 제조생산 전 과정이 100% 전기로 진행되는데, 사용되는 전기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발전된다. 이로써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려는 브리지스톤의 목표에 더욱 기여하고 있다.

###